



광고문학동호회

‘光호 문학’ 3호 나와

광고문학동호회 동인집 ‘光호 문학’ 3호(예월)가 나왔다.

올해로 3회째 발행된 동인집에는 은사님 작품, 동문 문인 등 모두 47명의 75편의 작품이 수록됐다. 은사님 작품(제직 순)에는 이내무, 장정식, 오명규, 김재창, 오재동, 장문식 씨의 시와 수필, 동화가 각각 실렸다. 동문 문인 작품에는 김계운, 김두환, 김양균, 김안, 마삼렬, 문순태, 오덕렬, 윤산현, 임지택, 조병기 씨 등의 시, 평론, 소설, 수필이 수록됐다.

동인집에는 2007년부터 실시한 광고문학상 백일장 운영 현황과 수상자들의 명단이 담겨 있다. 매년 광주전남 중고생이 참여해 글솜씨를 뽐내는 백일장은 8회까지 총 5000여 명이 참가, 800여 명의 입상자를 배출했다.

김계운 광고문학동호회장은 “창간호를 낸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3호를 내게 되었다”며 “회원들의 협조로 나날이 내실을 다져가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학동네 겨울호

5쇄까지 찍어내

문학의 침체가 이어지는 출판시장에서 문학계간지가 사상 처음으로 5쇄에 들어갔다.

문학동네는 지난해 11월 말 발간한 계간 문학동네 겨울호가 4쇄까지 매진돼 최근 5쇄에 들어가 1000부를 더 찍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겨울호는 조판 5000부를 비롯해 4쇄까지 모두 8000부가 팔렸다.

겨울호는 김훈·김연수·은희경·성석제·김영하·박현욱·김인수·천명관·박민규·김유진·손보미의 최신 단편소설이 실렸다. 문학동네는 겨울호에 실린 단편 소설을 모아 소설집을 낼 예정이었으나 계간지 판매가 호조를 보이자 애초 계획을 접기로 했다.

문학동네 측은 다음 달 발간되는 봄호도 850쪽 분량의 특집으로 꾸밀 예정이다. 소설가 최윤과 이기호의 단편을 비롯해 소설가 황석영과 문학평론가 신영철의 대담, 소설가 박민규의 산문 ‘진격의 갑질’ 등이 실린다.

/연합뉴스



내 안의 나를 돌아본다

극단 까치놀 ‘그것은 목탁 구멍 속의..’ 28일~3월2일 광주문예회관

갈등이 고조되며 극은 막바지로 치닫는다. 도법 스님은 고뇌하고 분노하며, 망령은 끊임없이 도법에게 자신을 들여다볼 것을 요구한다. 몸부림치던 도법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다.

짧게 깎은 머리에 승복을 입은 배우들은 감정을 쏟아내고, 연출가는 세밀한 부분을 지적하며 극의 완성도를 높여갔다. 24일 찾은 극단 ‘까치놀’의 ‘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이하 목탁구멍) 연습 현장은 열기가 넘쳤다.

‘목탁구멍’은 한국의 대표 희곡작가 이만희의 작품이다. 지난 1990년 초연 당시 서울연극제 작품상, 백상예술대상, 삼성문예상을 휩쓸며 화제를 모았던 작품으로 광주에서는 이번이 초연이다.

이번 작품은 극단 까치놀이 창단 30주년을 기념해 제작했다. 까치놀은 석산고 출신 연극인들이 만든 극단. 당시 고등학교생이었던 연출가 김영록과 이번 작품에 각각 탄성 스님과 원주 스님으로 출연하는 심성일·고길용씨 등이 함께 만들었다. 창단 작품은 ‘배비장전’이었다.

배우들은 작품을 읽는 각오를 다지며 지난날 중심사에서 머리를 깎았다. 유일한 여배우인 강원미씨도 예외는 아니었다. 머리카락이 많이 자란 배우들은 정식 공연을 앞두고 내일 다시 머리를 깎을 예정이다.

이번 작품을 위해 서울에서 활동하는 까치놀 출신 배우들까지 한 데 뭉쳤다. 극단 대표를 맡고 있는 이영민씨는 도법역으로 출연한다. 지난해 ‘하늘만 하늘만 푸르라’를 통해 18년만에 다시 배우로 무대에

조각가 출신 스님

절에서 불상 제작하며

깨달음 얻는 과정 그려

내면과 끊임없이 갈등하는

자기 자신 성찰하는 기회

극단 30주년 기념 작품

선 이씨는 “몇분 정도만 제외하고 계속 무대에 등장하는데 긴장감을 지속시키는 게 어렵다”며 “작품 속 대사와 의미는 무겁기도 하지만, 해석적으로 풀어내는 부분도 많은 작품”이라고 했다.

강원미씨는 사미승과 도법의 아내로 1인 2역을 하며 까치놀과 오랫동안 작업해 온 김영민씨가 망령역을 맡는다. 또 국악인 국극선씨가 방장스님으로, (사)노름마치 예술단의 김주홍씨가 악사 역을 맡아 극의 처음과 마지막을 열고 닫는다.

이번 작품의 제작비는 출연료를 제외하고 3000만원이 들었다. 지원금 없이, 지역극단에서 이같은 제작비를 투입하는 건 드문 일이다. 극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음악은 10여년 전부터 대흥사와 미향사에서 불교음악 작업을 진행했던 오영목씨가 맡았다.

‘목탁구멍’은 조각가 출신 도법스님이

불상 제작을 의뢰받고 봉국사에 오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속세에서 겪었던 어두운 과거는 이미 극복했다고 자신조차 속이던 도법이 불상을 만들면서 자신의 내면을 직시하게 되고, 파국으로 치닫는 게 주된 줄거리다.

이 작품은 절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스님들이 주인공으로 출연하지만 꼭 불교극으로만 읽히지는 않는다. 인간이라면 살면서 누구나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과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세속에 몸담았던 도법이라는 인물이 불교에 귀의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되는 게 큰 줄거리다. 극중에 등장하는 망령은 ‘또 다른 나’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 나 이외에 또 다른 인물을 모두 가지고 다니지 않나. 겨울 속에 비치는 그 인물과 같으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다. 내면 세계에서는 둘이 끊임없이 싸우며 갈등하고 고민한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김영록(극단 ‘시월’ 대표) 연출은 “이번 작품이 말장난과 가벼움이 앞서서 상업연극이 팽배한 요즘 연극계에서는 보기 드문 연극”이라고 말했다.

한편 까치놀은 30주년 기념작으로 당초 생각했던 아카데미 외국어상 수상작 ‘타인의 삶’을 연극으로 만드는 작업도 계속할 예정이다.

공연은 오는 28일(오후 7시), 3월1일(오후 3시·6시), 2일(오후 7시)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15세 이상 관람가. 문의 062-523-033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봄 마중’ 나갔다...

대인야시장 27~28일...길놀이·어쿠스틱 레게 등 다채

별장 프로젝트 사업단은 27~28일 오후 7시30분부터 밤 9시 30분까지 2월 대인예술야시장 행사를 진행한다.

대인예술야시장 2월 주제는 ‘봄마중’으로, 봄 기운을 맞이하는 테마들로 꾸며진다. 이번 행사는 대인시장 내 ‘예술가의 거리’에 있는 한평갤러리 중심으로 진행된다.

대인시장 상주 예술가와 시민셀러 120팀과 상인 60여팀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굴림의 ‘길놀이’, 루버스틱의 ‘어쿠스틱 레게’, 바다 프로젝트의 ‘거리의 악사’, 블랙아이즈 티어 멤버인 송호인의 ‘버스킹’ 등 공연을 만날 수 있다.

한편 광주시는 25일 대인예술야시장을 광주의 대표 문화콘텐츠로 키운다고 밝혔다. 문의 062-233-142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일상 탈출’ 할까

대인시장내 한평 갤러리 내달 14일까지 ‘웜홀’전



김동아 작 ‘치유’

광주대인예술시장에 위치한 한평 갤러리는 다음달 14일까지 ‘웜홀(wormhole)’을 주제로 올해 두 번째 전시를 개최한다.

‘일상의 비대칭성에 대한 소고’라는 부제가 달린 이번 전시에는 김동아, 김민범, 노은영, 마진영, 손보미, 한금성씨 등 젊은 작가 6명이 초대됐다.

전시를 관통하는 소재는 ‘일상’이다. 여섯 명의 작가들은 각자가 매일 마주하는 일상에 담긴 이야기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한다.

김동아는 일상에서 ‘힐링’을 꿈꿨고, 김민범은 ‘희생제의’를 떠올렸으며, 노은영은 ‘도시와의 공존’을 모색했다. 마진영은 ‘일상의 가치’를 곱씹었고, 손보미는 ‘일상의 관찰’을 통해 고정관념을 전복했으며, 한금성은 ‘일상의 춤사위’를 몸으로 표현했다.

문의 010-2620-8614.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대금과 트럼펫이 만나면

한국퓨전음악협회, 28일 전통문화관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오는 28일 오후 3시 서석당에서 한국퓨전음악 협회를 초대해 토요상설공연으로 ‘퓨전음악’을 선보인다.

대금과 색소폰, 트럼펫 가요합주를 시작으로 강백천류대금산조(중요무형문화재 제45호)를 연주하고 이어 입춤에 맞춰 장고·대금·징·북이 어우러지는 즉흥음악 시나위가 펼쳐진다.

또 강백천류대금산조 전수교인인 조철현씨가 각 지방의 아리랑을 대금으로 연주한다. 7080노래를 대금으로 들려주는 자리도 마련돼 있다. 이날 공연의 마지막 무대는 무술, 춤, 음악이 어우러지는 퍼포먼스다.

한국퓨전음악협회는 광주지역 음악인들과 대금연구소(소장 조철현)가 함께 결성한 퓨전음악단체로 국악과 양악이 어우러진 공연을 하고 있다. 이날 공연에는 조철현(공연제작·대금), 김재이·이덕진(색소폰), 박광수(트럼펫), 민관기(퍼커션)씨 등 16명이 출연한다. 문의 062-232-159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내 아이가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실시간 우리집 안심 지킴이 홈CCTV 헬로캠 탄생!

월 7,000원 (부가세 포함 7,700원)

※출시기념 혜택 지금 가입하시면 16GB SD카드 증정(1,000대 한정) - 3년 약정, 인터넷 결합 기준 / 무선공유기 임대료 별도

www.cjhellovision.com